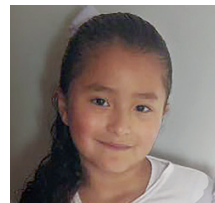


우리들 이야기



가족과 함께 성전에 갈 때마다, 영을 강하게 느껴요. 구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기분이예요. 저는 성전에 가는 것이 정말 좋아요.

알라나 엘, 8세, 브라질



저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존중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.

비앙카 브이, 7세, 콜롬비아



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물몬경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. 기도가 도움이 되는 것처럼요. 제 동생은 기도하기를 정말 좋아해요.

벤하민 엠, 3세, 호아킨 엠, 8세, 칠레



Hola... Mi nombre es Manuel Alejandro
Yo he sentido el espíritu
Cuando ----- ☺

Me bautice Senti hacerlo correcto
Senti felicidad hacerlo que cristo enseño
y cuando fuimos al templo con mi
hermana, mi mamá y mi papá nos sellamos
me senti feliz en el templo seremos una
familia eterna si hacemos lo bueno

저는 침례받을 때 영을 느꼈어요. 그래서 옳은 일을 선택하고 싶었어요.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때 행복했어요. 누나, 엄마, 아빠와 함께 성전에 가서 우리는 인봉되었어요. 저는 행복했어요. 옳은 일을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 될 거예요.

마누엘 알, 9세, 엘살바도르